

회장 선거운동 개입·잇속챙기기 급급한 광주상의 임원들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전무이사 퇴직금 상향...부칙 넣어 소급 적용까지 유력 후보에 '줄서기' 추태...지역경제 외면에 대대적 쇄신 필요 목소리

광주상공회의소 임원들이 본인들의 퇴직금을 인상하고, 내년 3월 예정된 회장 선거운동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역경제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극심한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들을 보듬어야 할 지역 최고 경제단체인 광주상의 임원들이 '제 잇속 챙기기'에 바쁜 데다, 향후 임원 자리를 보전받기 위해 차기 회장 유력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회원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지역 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본인들의 안위에만 급급한 탓에 결국 그 피해가 지역경제계로 이어질 수

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3일 광주상의와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2019년 2월 21일 '제23대 3차 상임의원회'를 열고 '급여규정 중 임원 퇴직금 지급률 변경'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상근부회장은 퇴직금 지급률을 기존 매년 1배수에서 매년 2.5배수로 상향하고, 전무이사는 기존 매년 1배수에서 매년 2배로 올렸다.

현재 상근부회장의 월 급여는 1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임기를 채우면 총 6년을 근무한다는 점에서 퇴직금만 최소 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광주상의는 "회원제도가 완전임의가입제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인한 상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02년 12월 23일 기준 3배수였던 상근부회장과 2.5배수였던 전무이사의 지급률을 1배수로 낮췄다. 또 평균 1.85배였던 일반 직원의 지급률도 1배수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상의는 "완전임의가입제도 전환 법령이 2010년 4월 5일 폐지돼 재정악화 우려가 사라졌음에도 퇴직금 지급률은 복원되지 않아 급여규정 일부를 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임원들의 퇴직금은 올리면서 함께 인하했던 일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률은 인상하지 않았다. 임원들이 퇴직금 지급률 복원을 핑계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상임의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지역경제는 물론, 회원사들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임원들 퇴직금을 올리겠다고 의원을 열

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상의는 급여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넣어 적용 일자리를 2018년 3월 21일로 정했다. 이를 두고도 광주상의의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상 소급적용이기 때문이다.

현 상근부회장은 2018년 3월 20일 임명됐으나,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협회, 공기업, 로펌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보류돼 6개월 뒤인 9월에야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했다.

심사가 보류된 6개월간은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 규정을 바꾸고 부칙까지 넣어 소급적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밖에 내년 3월 치러질 광주상의 회장 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임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도 확산하고 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기업 발전에 공헌해야 할 임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임원 자리를 보전받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 경제계 관계자는 "승진 등 자리를 노리고 임직원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사례가 반복되면 줄서기에 바쁘지 어느 직원이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지역기업이 받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상공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광주상의 설립목적을 위해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임원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지역경제계 안팎에서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임원들의 임기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아 광주상의의 위상이 추락한 만큼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결합 'DUAL 카드' 출시

아웃백 20% 할인 등 혜택 다양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카드인 'DUAL 카드'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DUAL 카드는 고불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카드다.

두 가지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DUAL 카드'는 기본형과 잔액 지정형 중 고객이 본인의 소비 습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기본형은 고객이 지정한 체크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결제할 금액이 그 이용한도보다 크거나 결제계좌 잔액보다 큰 경우 잔액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잔액 지정형은 고객이 결제계좌 잔액에 남겨둘 최소 잔액을 지정하고 그 잔액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잔액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방식이다.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아웃백 이용 시 20% 현장할인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5% 포인트 적립 ▲스타벅스·엔젤리너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



이스·메가커피 이용 시 5%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거래 시 0.5%, 체크카드 거래 시 0.3% 기본포인트 적립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동규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전남도교육청에 장학기금

12억50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현)는 최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에 '전남교육사랑·상생카드 장학기금' 후원식을 열고 1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기금은 NH농협은행이 지난 한 해 전남도교육청을 포함한 각급기관(학교) 및 전남 교육가족들이 사용한 전남교육사랑카드 이용액의 일정률을 적립해 조성됐다.

한편 전남교육사랑카드는 전남도교육청과 NH농협은행, BC카드사가 2005년에 맺은 협약에 따라 출시한 법인 및 개인카드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이날 전달한 기금을 포함해 지난 18년간 총124억7000만원의 '전남교육사랑카드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정재현 본부장은 "전남 도내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미래사회를 주도 할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전남본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스피	2410.60 (+16.01)
코스닥	788.89 (+0.29)
금리(국고채 3년)	3.435 (-0.268)
환율(USD)	1301.80 (-22.40)

광주테크노파크,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식

상생경영 실천·중대재해 제로 등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13일 ESG경영 추진을 위한 노사공동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 공동 선언 내용은 ▲에너지 절감 ▲친환경 도시 조성 ▲지역사회 협력 및 상생경영 실천 ▲중대재해 제로(Zero)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친환경 경영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책임경영 이행 방침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사회적 책임 분야는 중대재해 사고건수 Zero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 체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가치실현 협력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 내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광주첨단산업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지속가능한발전 경영 분야에는 신뢰 기반 노사 문화 정착, 윤리·인권 경영내재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집 원장은 "ESG 경영을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으로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특성과 역할에 맞게 ESG 추진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